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 개념의 문제점과 이론적 위험성, 그리고 사회학적 함의*

신 동준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1. 머리말

아마 사이코패스(psychopath)처럼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범죄학 용어는 없을 것이다. 연쇄살인과 같이 끔찍하고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사이코패스와의 관련성이 제기되곤 한다. 사실 ‘정상’ 적인 사람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범죄를 이해하기란 많은 사람들에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너무나 충격적인 범죄가 현실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동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비정상’ 적인 인간의 부류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이해 방식이 된다. 역시 그렇게 ‘비

* 이 연구는 2010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정상' 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록 '비정상' 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고개를 끄떡이는 것이다.¹⁾ 그래서 대중들에게 사이코패스는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범죄 현상을 그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과학인 범죄학에서 사이코패시(psychopathy)와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칭하는 사이코패스(psychopath)라는 개념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²⁾ 과연 사이코패시는 다른 개념들과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인가? 범죄학에서 이 개념이 어떠한 학문적 효용성을 갖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유용한 개념인가? 사이코패스 개념을 이론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한층 더 크다. 과연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의들이 범죄학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범죄의 원인에 대해 어떠한 학문적 기여를 하는가? 이론으로서의 논리성과 경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의 사이코패스 관련 연구들은 주로 그 효용성을 다소 성급하게 주장하는 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파급된 사이코패스의 대중적 매력에 편승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냉철하고 비판적인 논의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경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사이코패스 개념의 문제점과 이 개념이 이론에서 활용될 때 나타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의들이 갖는 범죄학적 의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의 사회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코패스는 현대 사회에서 마치 '괴물' 과도 같은 존재인 듯하다

1) 예를 들어, 과거 1930년대 말부터 미국의 주들에 확산된 성적 사이코패스(sexual psychopath) 관련 법들의 출발점은 일련의 아동 성폭행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Sutherland, 1950).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일반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필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Sutherland, 1950: 143).”

2) 사이코패시(psychopathy)와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정신병질'과 '정신병질자'라고 각각 번역된다. 이 논문에서 이 번역어들을 쓰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정신병질자라는 용어보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훨씬 더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정신병질자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Federman/Holmes/Jacob, 2009).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대중매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증폭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괴물’과 그 이미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괴물은 대개 흉악하고 악마적이면서 특별한 파괴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인간을 해하는 존재로 묘사되곤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괴물은 이질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와, 혹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는 다른 괴기스러운 짐승이나 혹은 짐승과 인간이 혼합된 외양을 갖는다. 우리와는 다른 낯선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흉악함과 이질성으로 괴물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 불가사의함과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 경이롭고도 매혹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인간들에게 괴물이라는 존재는 회피의 대상이거나 격리의 대상, 혹은 공격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사이코패스 역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도 같은 이질적인, 즉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비정상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과 심지어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철저히 색출해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괴물은 신화나 전설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쩌면 사이코패스를 ‘괴물’로 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라는 ‘괴물’은 실재적 존재이기 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허구적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의 체계가 결합하여 과거의 괴물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Federman 등, 2009)?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괴물’은 어떠한 ‘비정상’적인 존재이기 보다는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 낸 어쩌면 전형적인 ‘정상적’ 인간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함으로써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2. 사이코패스 개념의 특징

우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격적·행동적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이코패스 개념의 역사는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다. 사이코패시에 대한 저술은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후 도덕적 광기(moral insanity), 도덕적 저능(moral imbecility),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거나 그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Arrigo/ShIPLEY, 2001; 헤어, 2005: 52-56; 이 수정, 2006: 81-82).³⁾ 비교적 최근까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용어는 소시오패스와 반사회적 성격장애이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라는 두 개념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당 증후가 사회적 영향과 아동기의 경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심리학적,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헤어, 2005: 50).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경우 사이코패시와 임상적으로 혼돈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형사 정책 및 교정 정책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ShIPLEY/Arrigo, 2001).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주로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되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된 범죄자 중에서는 단지 일부만이 사이코패스라고 알려져 있다(헤어, 2005: 52; ShIPLEY/Arrigo, 2001: 409). 따라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시를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
- 3) 일반인들은 사이코패스를 정신이상자 혹은 정신병자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정신이상자들과 달리 인식 능력과 현실 감각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정신질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헤어, 2005: 48). 사이코패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정신 장애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환상이나 망상, 불안 등을 보이지 않는다.
- 3) 그러나 현재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을 생물학적 내지는 심리학적 요인에서 찾는 연구들이 지배적인 반면,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사이코패시의 개념적·이론적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행동적 특성 외에도 특이한 성격적 특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된다.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질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자로 클렉클리(Cleckley, 1988)를 들 수 있으며, 헤어는 여기에 기초하여 현재 사이코패시에 대한 표준화된 임상적 측정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이코패시 진단표(Psychopathy Checklist: PCL)를 제시하였다(Hare, 1991; Vieu/Beech, 2006: 164). 과연 사이코패스의 이상적인 원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지만(Wiebe, 2010: 326), 최초 진단표의 개정판인 헤어의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이 현재까지 사이코패시의 진단에 가장 널리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artol/Bartol, 2005: 129; Morse, 2002: 1265).

헤어의 PCL-R은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Hare, 1991; Bishopp/Hare, 2010: 122). 이 진단표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1) 언변이 뛰어나고 피상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며, 2) 과장된 자존감, 3) 자극 추구, 4) 병리적 거짓말 등으로 특징 지워지고, 5) 남을 속이고 조종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6)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7) 피상적 감정을 보일 뿐만 아니라 8) 둔감하고 동감 능력이 결여 되어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9) 기생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면서, 10) 행동 통제에 취약하고, 11) 문란한 성생활과 함께 12) 아동기에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13) 현실적 목표가 결여되어 있고, 14) 충동성과 15) 무책임성을 보이면서, 16)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는 17) 대인관계 면에서 단기적 관계로 특징 지워지며, 18) 청소년기에 비행 경력이 있고, 19) 조건부 가석방이 자주 취소되며, 마지막으로 20)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른다고 헤어의 PCL-R은 제시하고 있다.

헤어가 제시한 이상의 항목들은 이후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ishopp/Hare, 2008: 121). 첫 번째 요인은 성격적 특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위 항목들 중 1) 뛰어난 언변/피상적 매력, 2) 과장된 자존감, 4) 병리적 거짓말, 5) 남을 속이고 조종하는 경향, 6) 후회나 죄책감의 결여, 7) 피상적 감정, 8) 둔감/동감능력 결여, 16)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상 8개 특질이 포

함된다. 두 번째 요인은 행동적 특징에 대한 것으로, 3) 자극 추구, 9) 기생적 생활양식, 10) 행동 통제 취약, 12) 아동기의 문제 행동, 13) 현실적 목표 결여, 14) 충동성, 15) 무책임성, 18) 청소년 비행, 19) 잦은 조건부 석방 취소, 이상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PCL-R 항목들 중 11) 문란한 성생활과 17) 단기적 대인관계, 그리고 20) 다양한 범행은 2요인 모형에서 어느 요인에도 묶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이코패스의 핵심적 특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⁵⁾

헤어가 제시한 위의 목록은 현재 사이코패스의 특질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개념의 모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확실히 구분되는 임상 장애라기보다는 편의에 의해 전문가들에게 통용되는 편리한 이름표로서 쉽게 오용되고 남용될 위험성이 크다(Federman 들, 2009: 50). 사이코패스 개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매우 크며, 특히 이러한 개념의 범죄학적 유용성에 대한 회의도 만만치 않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필요성과 유용성으로 사이코패스 개념은 이렇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특징 상 일반 범죄자들과 구별되는 유형의 범죄자들을 특정화하려는 요구이다. 사실 경력 범죄자(career criminals)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연구들이 이러한 필요와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Vaughn/DeLisi, 2008). 경력 범죄자는 생애 초기부터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범죄성이 일생에 걸쳐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을 특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개념은 경력 범죄자 개념과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범행의 동기나 목적에서 기존의 범죄학이 적절히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들을 다룰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흉악한 범죄 행동을 저지르거나 범죄 행동의 빈도나 정도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향을 보이는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라는 명칭을 부여하려는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크

5) 이 항목들은 이후에 제시된 3요인 모형에서는 배제되었고, 헤어 등이 제시한 4요인 모형에서는 범행의 다양성에 대한 20번 항목만이 포함되었다(Bishopp/Hare, 2010: 122).

게 정책적인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사이코패스 개념의 문제점과 형사 정책적 위험성

사이코패스는 범죄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관습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의 어느 부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바비악/헤어, 2007). 심지어 우리가 ‘영웅’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들도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Walsh/Wu, 2010: 138). 이는 특히 범죄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사이코패시 자체보다는 사이코패스가 처한 환경적 요인들이 오히려 더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 사이코패스라도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관습적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인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칭송을 받는 영웅적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건적 변인에 따라 이렇게 결과의 변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큰 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이코패스 개념을 이론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 문제의 소지가 많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범죄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이코패스 개념이 의미가 있다면 원인론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형사 정책의 차원에서 그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시 내지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의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이론적 가치에서 보다는 형사 정책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된 사람들이 엄밀한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로 판정될 경우, 이후의 교정 내지는 처우의 수준과 방식에서 일반 범죄자들과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사이코패스는 현재의 교정 체계 내에서 교화 혹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둘째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일반 범죄자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이 두 가지 가정이 모두 경험적으로 지지된다고 평가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

인다(Harris/Rice/Cormier, 1991; Hemphill/Templeman/Wong/Hare, 1998; Gretton/McBride/Hare/O' Shaughnessy/Kumka, 2001; Douglas/Vincent/Edens, 2006).⁶⁾ 사이코패스와 경력범죄자 개념의 경험적 유사성을 근거로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 행동이나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성을 설명하는데 사이코패스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되기도 한다(Vaughn/DeLisi, 2008: 40). 만약 그렇다면 일단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포착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 내지는 처우를 달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범죄 통제의 목적에 비추어 채택가능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우선 예측 방법 자체는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고도의 범죄 위험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이코패스 개념의 특성 상 실제 적용에서 예측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위험성이 있다.

재범 예측 혹은 범죄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오류 긍정(false positives)의 가능성이 오류 부정(false negatives)의 가능성보다 더 높는데, 이는 평가 실무자가 자신의 판단 착오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 수정, 2006: 191-192). 오류 부정은 실제로는 위험성이 높는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오류 긍정은 실제로는 위험성이 낮는데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 부정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사회로 복귀시킨 범죄자가 또 범죄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류 긍정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실제로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잘못된 예측 내지는 평가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흉악한 범죄 행동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이러한 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때 오류 긍정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단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그러한 낙인이 부여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당

6) 치료와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코패스들은 오히려 타인들을 존중하고 기만하여 이용하는 방식과 기술을 익히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헤어, 2005: 308-310; Hare/Clark/Grann/Thornton, 2000: 629-630).

하게 처벌이 부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측이 어긋나서 재범이 발생할 위험성을 특히 사이코패스로 진단이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예측의 오류가 극악무도한 추가 범죄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코패시 판정이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과정에서 반영될 때 부작용의 가능성은 크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 여전히 성폭력법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사이코패시 검사를 피고나 제소자의 위험성 평가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에 근거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 판정과 PCL-R에 따른 사이코패스 판정 사이의 임상적 혼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ShIPLEY/Arrigo, 2001). 사이코패스는 교정이 불가능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믿음에 근거한 정책의 결과로 사이코패스라고 잘못 낙인이 찍힌 범죄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믿음에 비추어 볼 때,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매우 치명적인 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는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가 교정 불가능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이코패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가 적절하고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Farrington, 2005: 495). 그래서 PCL-YV(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시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코패스 측정도구가 소년범의 재범 예측에도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김 동민/박 현진, 2005; 김 동민/박 현진/김 지훈, 2005; GRETTON/Mcbride/Hare/O' Shaughnessy/Kumka, 2001; Salekin, 2008). 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이 갖는 심각한 낙인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사이코패

스 개념에 입각한 교정 내지는 치료 프로그램이 오히려 해당 청소년의 범 죄성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사이코패스라는 낙인은 교정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높은 재범률이 예상되며 생물학적 원인을 갖는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희망과는 달리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 노력이 포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Bartol/Bartol, 2005: 136). 더군다나 충동성, 과장된 자존감, 현실적 목표의 결여, 무책임성과 같은 사이코패스의 주요 지표들은 사실상 청소년기 특유의 일반적 특징들일 가능성이 크고, 열악한 가정환경 등과 같이 청소년기에 제한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크게 좌우될 여지도 크다는 비판들이 있다(Bartol/Bartol, 2005: 137). PCL이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될 때 그 정확성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오류 긍정의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 정도는 성인과 비교하여 훨씬 심각할 것이다.

사이코패스 개념의 형사 정책적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과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사이코패스 개념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내지는 재범 예측에 활용되어 실제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코패스라는 낙인의 치명적인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적지 않게 될 것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낙인이 적용되었을 때 그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코패스 개념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비교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형사 정책에 실제로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 정책적으로 사이코패스 개념의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이론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의들이 갖는 이론적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4. 사이코패스 개념의 이론적 위험성

사이코패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아직도 그 원인이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러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들이 거론되었지만 어느 하나 경험적으로 확실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원인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고 있지 못하다(Morse, 2002: 1266; Vien/Beech, 2006: 170). 사이코패시의 원인을 아동기의 학대, 부모와의 분리, 훈육, 감시/감독, 가족해체 등 가족 요인들에서 찾는 연구들이 있기는 하다(Farrington, 2005: 493).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정신병리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 이상,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뇌반구의 불균형, 전두엽 이상, 뇌 각성수준 이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artol/Bartol, 2005: 139-157). 그리고 진화심리학에 근거하여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질이 갖는 진화론적 이점으로 사이코패시의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Bishopp/ Hare, 2010: 118). 이와 같이 생물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이코패스의 원인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실 사이코패스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작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문의 범주 밖에 두기로 한다. 여기서는 범죄학 이론에서 사이코패스 개념의 위치, 즉 범죄 행동의 원인으로서 사이코패시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시의 원인을 찾는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사이코패시가 범죄 행동의 원인이라는 인과론적 설명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범죄학에서 후자의 인과관계가 훨씬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후자들은 사이코패시의 이론적 유용성을 높이 평가한다. 사이코패스를 식별함으로써 다양한 모집단 내의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사이코패스 개념 자체 내에서 포괄하기 때문에 심지어 범죄의 통합(unified) 이론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DeLisi, 2009). 따라서 사이코패스는 형사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념을 넘어서

서 범죄학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비정상’ 적인 범죄 행동에 대한 이유를 ‘비정상’ 적인 행위자에게서 찾는 자연스럽고도 편리한 접근 방식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미지역의 백인 남성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헤어의 PCL이 과연 다양한 모집단에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만만치 않은 회의론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Bartol/Bartol, 2005: 133-139). 게다가 환경적 요인들과 생물학적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론으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더욱이 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명제들이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을 경우에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이른바 사이코패스 이론은 범죄학적 기여 가능성 보다는 그 문제점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고 본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헤어의 주장은 범죄 행동에 대한 의학적 접근과 성격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Walters, 2004). 특히 성격 이론의 경우 사이코패스 특질의 개념 구성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Bishopp/Hare, 2010: 119-120). 그런데 성격을 통해 범죄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성격 이론에서는 행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성격이 전 생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일찍이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의 성격적 특질에서 보이는 유의미하고 일관된 차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격적 특질과 범죄 행동 사이의 경험적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Sutherland/Cressey, 1966: 180), 성격 검사에 대한 이후의 논평에서도 “범죄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이론적 관련성도 갖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Vold/Bernard/Snipes, 1998: 98-99). 무엇보다도 일생동안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그러한 핵심 성격이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Shoemaker, 1996: 69). 따라서 범죄 행동에 대한 이론으로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사이코패시라는 독특한 행동적·성

격적 특질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생물학적 요인들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설사 사이코패스와 범죄 행동 간의 인과론적 관련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이론으로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다른 범죄사회학 이론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일찍이 고프(Gough, 1948)는 미드(Mead, 1977)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하여 사이코패스의 특질들은 근본적으로 역할담당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드에 따르면 자신을 객체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자아(self)의 형성에 핵심적이고, 이를 통해서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의 개념이 발전함으로써 타인과의 조정과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는 자아의 두 차원인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내재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타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능력과 함께 일반화된 타자들의 기대, 즉 사회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통제 가능성을 낳게 된다. 고프의 주장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객체적 자아의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 담당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결국 감정의 결여와 충동성, 무책임성 등을 포함한 사이코패스의 핵심적인 성격 특질들은 역할담당 능력 결여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고프의 입장이다.

또한 허쉬(Hirschi, 1969)는 그의 사회통제 이론에서 사회 유대의 핵심 요소인 애착(attach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이코패스와 범죄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양심과 죄책감의 결여 등은 결국 타인에 대한 애착 결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irschi, 1960: 17-18). 애착의 결여는 타인의 견해에 대해 둔감함을 의미한다고 허쉬는 보고 있다. 따라서 애착 결여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의 경우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쉬의 이론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다름 아닌 사회 유대가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애착의 결핍으로 그들의 성격적·행동적 특징들이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허쉬가 보기에 사이코패스라는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을 동원하여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려는 시도의 이론적 장점을 찾을 수가 없다. 사회 유대와 애착이라는 사회학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고, 오히려 개념의 명확성과 이론의 일반성 및 논리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후에 허쉬가 갓프레드슨(Gottfredson/Hirschi, 1990)과 함께 제시한 자기 통제 이론은 사이코패스 이론과 매우 유사한 설명틀을 갖고 있다. 실제로 자기 통제와 사이코패시 두 개념 간의 유사성이 제시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Wiebe, 2010). 단 허쉬와 갓프레드슨은 사이코패시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범죄성의 원인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설명 내지는 유전적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다(Gottfredson/Hirschi, 1990: 60-61).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설명도 거부하면서 자기 통제라는 개인적 특성 외에 그 어떠한 성격적 요인들도 범죄성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윌글: 108-111).⁷⁾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약한 자기 통제력의 특징은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질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윌글: 89-91). 허쉬와 갓프레드슨은 자기 통제력이 결여된 사람은 즉각적이고 쉬운 욕구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동적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순간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근시안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나 불편에 대해서 둔감하며 자기중심적이다.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육체적이고 비언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스릴 있는 행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가까이 위험을 감수하는 특징이 있다고 허쉬와 갓프레드슨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의 그것들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허쉬와 갓프레드슨이 그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코패시와 범죄 행동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얼마든지 자기 통제력과 범죄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통제’라는 개념이 ‘사이코패시’라는 개념에

7) 허쉬와 갓프레드슨은 약한 자기 통제력의 원인을 아동기에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육과 훈련의 결여라는 사회화 과정상의 문제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학적 이론 틀을 견지하고 있다.

비해서 훨씬 덜 문제적이고 명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이코패시와 사이코패스 개념은 기존의 범죄사회학적 이론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덜한 개념을 동원하여 좀 더 일반적이고 간결한 이론적 설명을 더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극단적 형태의 범죄 행동과 범죄자 집단에 대한 설명에서 갖는 사이코패스 개념 특유의 장점들이 일부 상실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일반성과 간결성이라는 이론의 핵심 장점들에 비해 과연 더 우월한 장점들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 본 형사정책 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찌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사이코패스 개념의 이론적 적용은 이러한 대체 가능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의 논리성 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바로 사이코패스 개념이 범죄 행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어떠한 논리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우선 범죄학 이론에서 사이코패시가 갖는 인과관계 상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원인론은 범죄학의 핵심이 되어왔고, 결국 대부분의 범죄학적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범죄 행동이라는 결과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다. 여기서 사이코패시는 범죄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사회학적 이론들의 설명 틀을 빌리자면, 사이코패스는 역할담당 능력이 매우 취약한 사람이거나, 애착 결여의 정도가 심한 사람, 혹은 자기 통제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이 범죄 행동을 저지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시는 취약한 역할담당 능력, 애착의 결여, 혹은 약한 자기 통제력이라는 원인들과 범죄 행동이라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과연 사이코패시라는 개념의 매개가 필요한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사이코패시라는 개념을 원인 변인과 결과 변인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범죄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과관계 상에서 사이코패시 개념을 배제하는 것이 이론의 간결성과 일반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본다. 인과관계가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비정상’ 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정상’ 적인 범죄 이외에도 비교적 ‘정상’ 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교적 ‘정상’ 적인 범죄까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행동의 원인을 사이코패스에서 찾으려는 경향은 이론의 논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본질적으로 동어반복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허쉬가 지적하였듯이 “사이코패시가 설명하려고 하는 행동이 종종 사이코패시에 대한 정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Hirschi, 1969: 17). 사이코패시 개념이 사실상 이것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범죄 행동으로부터 유추되었다고 할 때 이는 순환논리로 간주될 수 있다(Sutherland/Cressey, 1966: 180).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한 헤어의 묘사에서 잘 나타나듯이 사이코패스는 범죄적 성향을 갖고 실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는 결국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헤어는 PCL을 제시하면서 성격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 2요인 모형을 제시했으며, 여기서 반사회적 행동의 특징들을 두 번째 요인에 포함시켰다. 요인 2에 반사회적 행동들이 주요 항목들로 포함된 이러한 헤어의 모형을 비판하며 제시된 3요인 모형을 통해서 일부 학자들은 헤어의 모형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이코패시를 묘사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Cooke/Michie, 2001; Cooke/Michie/Hart/Clark, 2004). 이후 좀 더 정교화된 헤어의 4요인 모형에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차원이 사이코패스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는 동어반복의 위험성으로 인해 범죄의 원인으로서 사이코패시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Farrington, 2005: 490). 그리고 PCL-R의 재범 예측력의 대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지적도 있다(Morse, 2002: 1266). 그러나 헤어는 4요인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는 최근까지도 행동적 측면을 성향적 측면과 구분하기가 측정구조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사이코패시의 측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Bishopp/Hare, 2010). 따라서 바로 그 개념 안에 반사회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이코패스 이론이 갖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오랜 상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이론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사이코패스 이론의 검증가능성도 방법론의 측면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PCL-R은 자기보고, 행동관찰,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정보, 체포기록과 재판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숙련된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체계로 되어있다(Bartol/Bartol, 2005: 129-130). 이렇게 사이코패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PCL-R을 일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큰 표본의 관찰에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측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주관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확신하기도 어렵다(Farrington, 2005: 490; Williams/Paulhus/ Hare, 2007: 205). 따라서 사이코패스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과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교정시설에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헤어 스스로도 “사회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며 단지 교정시설 내의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Hemphill/Hare, 2004: 216).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개념이 갖는 이론적 위험성은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와 연결될 수도 있다. 사실 이론과 정책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갖는다. 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으로 파악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형사 정책 내지는 좀 더 근본적인 사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쇄 살인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의 원인으로 사이코패시를 지목함으로써 다른 원인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이코패스라는 개념과 흉악한 범죄와의 관계를 고도의 비정상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손쉽게도 매력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과론적 설명은 전문가들과 대중 모두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방법론상의 엄정성과 무관하게

상호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특이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다른 이론적 설명들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무시될 수 있다. 이는 해당 범죄의 원인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킴으로써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정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인 상황에서, 이른바 사이코패스 ‘이론’을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효과는 단지 일시적이고 대중적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론이 새로운 교정 정책의 개발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정 유형의 범죄자를 최대한 조기에 색출하여 단순히 격리시킴으로써 해당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그러한 범죄 혹은 범죄자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특징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찾아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할 것이다.

5. 사이코패스의 사회학적 함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사이코패스라는 매우 ‘비정상’ 적 인간 유형을 상정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고 있지 못하고, 그 원인에 대한 파악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라는 ‘비정상적’ 인간 유형을 동원하더라도 그들이 저지른다고 믿어지는 ‘비정상’ 적 현상은 결국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오히려 그 알 수 없음의 대상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 유형의 인간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알 수 없음과 익숙하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증폭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규정하는 규범적 행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기술-지식 체계를 동원하여 사회구성원과 사회 전체에 위협한 대상으로 규정한 결과가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의 등장이며, 과거부터 존재했던 ‘괴물’ 자리를 현대 사회에서 바로 이 사이코패스가 대신했다는 분석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Federman 들, 2009).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존재와 그러한 존재들이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범죄들에 대한 공포는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전례 없이 쉽게 촉발된다(Sutherland, 1950: 144).⁸⁾ 사이코패스는 현대 사회에서 ‘괴물’의 지위를 점하게 되고, 우리와는 다른 ‘비정상’으로서 괴물의 이미지는 그 매력적인 상품가치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증폭되며 확산되고 있다(양 정혜, 2010; 최현주, 2010).

그런데 과연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비정상적’인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회의 ‘정상적’인 부산물이지는 않을까? 사실 헤어 스스로도 사이코패시 판정표에 제시된 특징들 중 일부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강화하고, 심지어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Hare, 1993: 177). 그리고 사이코패시는 임상적으로 구분되는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성격 차원들의 변형이며, 이러한 특징들이 반드시 사이코패스에게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로 합쳐졌을 때 형성되는 위험한 조합이라고 밝히고 있다(Bishopp/Hare, 2010: 128). 그렇다면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범도 될 수 있지만, 직업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언뜻 모순되는 주장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는 것들 중 대부분이 사실상 현대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심지어 암묵적으로 권장하기까지 하는 자질들은 아닐까? 사이코패스는 그 이질성으로 괴물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가 체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은 사실상 현대 시장경

8) 미국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히스테리가 정점에 달한 시기는 당시 대중매체를 통해 받은 인상과는 달리 성범죄가 정점에 달한 시기와 사실 일치하지 않았다(Sutherland, 1950: 144; Freedman, 1987: 84).

제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으며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들이다(Smith, 1984). 우리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상화된 칸트적 가치들이 있는 반면, 그와 동시에 이러한 가치들과 배치되는 현실적인 마키아벨리적 가치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윌글: 185).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적 지향을 강조하고 성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후회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은 불필요하며, 타인과의 정서적인 관계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넘쳐나는 상품들과 소비의 유혹들은 당장의 유혹에 저항하지 말고 충동에 복종할 것을 명령한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적 가치들은 현대 시장사회에서 엄연히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극단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사실 반사회적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로 사회화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윌글: 193). 결국 우리와 너무도 다르다고 느끼는 괴물은 사실 그렇게 이질적인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적 에토스를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미국 범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Messner/Rosenfeld, 2006).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게 만드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범죄학의 시각에서 비판한 머튼(Merton, 1938)의 아노미 이론을 계승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은 강한 성취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물질적 성공은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척도가 된다. 이러한 가치 지향성이 강력한 개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하며 치열한 경쟁에 몰두한다. 이러한 문화적 압력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주장한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문화가 갖는 핵심적 특징이라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미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지형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개인의 목적 달성이 우선시 되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을 기만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은 유약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현대 사회에 그러한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에 따를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경험을 통해서 이를 학습한 사이코패스의 존재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특질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질들에서 다소 과장된 형태로 발견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단지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⁹⁾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성의 측면들이 경쟁과 지배를 부추기는 현대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이코패스라는 ‘괴물’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사이코패스라는 ‘괴물’ 만들기의 또 다른 이면은 대중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사이코패스라는 흉악하고 이질적인 ‘괴물’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증폭되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각인되고 있다. 사실 대중매체에게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바로 사이코패스는 ‘괴물’의 이미지가 갖는 그 대중적 매력으로 인해 매우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흉악 범죄의 피의자는 아무런 전문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이코패스로 기정사실화되어 해당 범죄의 관련 기사들이 프레이밍되어 버린다(양 정혜, 2010).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코패스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충실히 작동하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진다. 현대 사회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극단적인 이질성과 두려움으로 타자화되어 우리의 상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마치 분열증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9) 여성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거의 전적으로 남성 사이코패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헤어의 PCL이 여성에게도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사이코패스는 남성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다(Bartol/Bartol, 2005: 133-134).

6. 맺음말

이러한 대중매체의 행태는 사이코패스 개념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사이코패스 개념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대중매체에서 사이코패스를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과 같은 흉악한 범죄와 지속적으로 연결시킨다면, 대중들은 사이코패스를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단정 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의미마저 왜곡되어 버린다. 게다가 ‘사이코’ 패스라는 명칭 자체가 대중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이다. 서덜랜드는 과거 미국에서 성적 사이코패스(sexual psychopath)에 대한 법들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언론의 여론 조작과 정신의학자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영향이 컸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Sutherland, 1950).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와 전문가들의 견해 표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코패스 개념의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 판정표의 경험적 타당성은 주로 캐나다와 미국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 PCL-R의 재범 예측 타당성이 스웨덴과 영국 등 다른 나라의 표본을 대상으로 검토되었고, 일반적으로 북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들 나라에서도 그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보고된다(Hare 등, 2000). 그러나 이러한 검토들도 유럽 문화권의 국가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국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¹⁰⁾ 특히 우리 사회에서 PCL이 과연 얼마만큼의 예측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PCL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바

10) 북미의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할 수 있는 PCL-R 기준 점수가 30점인 반면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25점, 스웨덴은 26점으로 기존의 기준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re 등, 2000: 625).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에 따라 25에서 30점의 기준 점수를 보이고 있다(이 수정/고려진/김재경, 2009; Lee/Kim, 2010). 이는 사이코패스의 특질들과 관련하여 국가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람직하다고 본다(이 수정 들, 2009).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에서 그 타당성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선불리 사이코패스 개념과 PCL을 교정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이코패스 개념에 현실적인 유용성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와 재범 가능성 예측에 있다고 본다. 실제로 사이코패스 개념과 PCL-R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된 근거는 이것이 매우 뛰어난 재범 예측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사이코패스’라는 낙인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재범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행동적 특성들을 위험성 평가와 재범 예측에 고려하면 될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성격적·행동적 특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사실 성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의 무한한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조합들이 의미 있는 내적 일관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명칭이라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것처럼 사이코패스를 구성하는 특성들을 얼마든지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까지를 포괄하는 재범 예측 절차를 통해서 해당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혹은 적절한 처우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PCL-R 점수는 차원에 따라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당 원점수나 표준화 점수 등을 위험성 평가에서 활용할 수도 있음을 해어 스스로가 제안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Hemphill/Hare, 2004: 210).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사이코패스의 치명적인 낙인 효과와 그에 수반되는 형사 정책적 부작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요인 내지는 신경심리학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와 범죄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은 범죄학에서 그동안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생물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 범죄학에서 사회학적 접근이 지배해 왔던 그동안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범죄 행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생물학

적, 심리학적 접근과 어느 선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Cauffman/Steinberg/Piquero, 2005). 하지만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이론적 맹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이론적 작업에서 굳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중매체에 의해서 ‘괴물’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사이코패스는 사실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문화가 갖는 어두운 이면의 극단적 반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사이코패스는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정상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 존재가 ‘괴물’로 여겨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그다지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사이코패스는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일 뿐, 대중매체가 우리의 상상 속에 구성한 ‘괴물’의 모습이 그 본질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사이코패스의 특질들이라고 제시되는 목록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현실에서 요구하는 덕목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서 사이코패스들은 얼마든지 배출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것보다 사이코패스의 특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낳는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주목하는 것이 범죄학적 관점에서 훨씬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 도움 받은 글

김 동민/박 현진, “청소년 정신병질 유형분류: 1차적 정신병질과 2차적 정신병질,” 『청소년상담연구』, 13권 2호(2005).

_____/박 현진/김 지훈,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권 1호(2005).

로버트 D. 헤어, 『진단명: 사이코패스,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상인격자』(조은경/황정하 옮김)(서울: 바다출판사, 2005). 원제는 Hare, Robert. D.,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양 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10권 2호(2010).

이 수정, 「최신범죄심리학」(서울: 북카페, 2006).

_____/고려진/김재경,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의 구성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3호(2009).

Lee, Soo Jung/Kim, Minjung, “Study on Recidivism Prediction Capability of PCL–R for Criminals in South Korea,”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1권 1호(2010).

최현주, “사이코패스 범죄보도의 젠더 담론: 강호순 사건에 대한 방송 3사(KBS, MBC, SBS)의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1호(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폴 바비악/로버트 D. 헤어,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이경식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원제는 Babiak, Paul/Hare, Robert. D., *Snakes in Suits: When Psychopaths Go to Work*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2006).

Arigo, Bruce A./Shipley, Stacey, “the Confusion over Psychopathy (I): Histor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권 3호(2001).

Bartol, Curt R./Bartol, Anne M.,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7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05).

Bishopp, Daz/Hare, Robert D.,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of the Hare PCL–R: Unfolding the Structure of Psychopathy,” *Psychology, Crime and Law*, 14권 2호(2010).

Cauffman, Elizabeth/Steinberg, Laurence/Piquero, Alex R., “Psychological, Neuro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Correlates of Serious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The Role of Self–Control,” *Criminology*, 43권 1호(2005).

Cooke, David J./Michie, Christine, “Refin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ward a Hierar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권 2호(2001).

_____/Michie, Christine/Hart, Stephen D./Clark, Daniel A., “Reconstructing Psychopathy: Clarifying the Significance of Antisocial and Socially Deviant Behaviour in the Diagno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8권 4호(2004).

Cleckley, Hervey M., *The Mask of Sanity, 5th edition* (Augusta, GA: Emily S. Cleckley, 1988).

DeLisi, Matt, “Psychopathy is the Unified Theory of Crim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7권 3호(2009).

Douglas, Kevin S./Vincent, Gina M./Edens, John F., “Risk for Criminal Recidivism: The Role of Psychopathy,” Christopher. J. Patrick (역음), *Handbook of Psychopath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6).

Farrington, David. P., “The Importance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권 4호(2005).

Federman, Cary/Holmes, Dave/Jacob, Jean Daniel, “Deconstructing the Psychopath: A Critical Discursive Analysis,” *Cultural Critique*, 72권 1호(2009).

Freedman, Estelle B., ““Uncontrolled Desires”: The Response to the Sexual Psychopath, 1920–1960,”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4권 1호(1987).

Gottfredson, Michael R./Hirschi, Travis,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Gough, Harrison G., “A Sociological Theory of Psychopath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3권 5호(1948).

Gretton, Heather M./McBride, Michelle/Hare, Robert D./O’Shaughnessy, Roy/Kumka, Gary, “Psychopathy and Recidivism in Adolescent Sex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권 4

- 호(2001).
- Hare, Robert D.,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1991).
- _____,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Guilford Press, 1993).
- _____/Clark, Danny/Grann, Martin/Thornton, David, "Psychopathy and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PCL-R: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8권(2000).
- Harris, Grant T./Rice, Mamie E./Cornier, Catherine A., "Psychopathy and Violent Recidivism," *Law and Human Behavior*, 15권 6호(1991).
- Hemphill, James F./Hare, Robert. D., "Some Misconceptions about the Hare PCL-R and Risk Assessment: A Reply to Gendreau, Goggin, and Smit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권 2호(2004).
- _____/Templeman, Ron/Wong, Stephen/Hare, Robert D., "Psychopathy and Crime: Recidivism and Criminal Careers," David. J. Cooke/Adelle E. Forth/Robert D. Hare (역음),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Boston: Kluwer, 1998).
- Hirschi, Travis,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Mead, George Herbert, *On Social Psyc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Merton, Robert K.,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권 5호(1938).
- Messner, Steven F./Rosenfeld, Richard,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4th edition (Belmont, CA: Thomson, 2006).
- Morse, Stephen J., "Psychopathy," *Encyclopedia of Crime & Justice*, 2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2002).
- Salekin, Randall T., "Psychopathy and Recidivism From Mid-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Cumulating Legal Problems and Limiting Life Opportun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권 2호(2008).
- Shiple, Stacey/Arrigo, Bruce A., "The Confusion over Psychopathy (II): Implications for Forensic (Correctional)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권 4호(2001).
- Shoemaker, Donald J.,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3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Smith, Robert. J., "The Psychopath as Moral Agent,"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5권 2호(1984).
- Sutherland, Edwin H., "The Diffusion of Sexual Psychopath Law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6권 2호(1950).
- _____/Cressey, Donald R.,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ition (Philadelphia: Lippincott Company, 1966).
- Vaughn, Michael G./DeLisi, Matt, "Were Wolfgang's Chronic Offenders Psychopaths? On the Convergent Validity between Psychopathy and Career Criminal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권(2008).
- Vien, Anh/Beech, Anthony R., "Psychopathy: Theory, Measurement, and Treatment," *Trauma, Violence, and Abuse*, 7권 3호(2006).
- Vold, George B./Bernard, Thomas J./Snipes, Jeffrey B., *Theoretical Criminology*, 4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Walsh, Anthony/Wu, Huei-Hsia, "Differentiating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y, and Sociopathy: Evolutionary, Genetic, Neurological, and Sociological Consideration," *Criminal Justice Studies*, 21권 2호(2010).

Walters, Glenn D., "The Trouble with Psychopathy as a General Theory of Crim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8권 2호(2004).

Wiebe, Richard. P., "Reconciling Psychopathy and Low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0권 2호(2010).

Williams, Kevin M./Paulhus, Delroy L./Hare Robert D., "Capturing the Four-Factor Structure of Psychopathy in College Students Via Self-Re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권 2호(2007).

검색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시(정신병질), 사회학, 범죄학, 형사정책

투고일/심사일/게재확정일 2011.04.03 / 2011.05.09 / 2011.05.16

Understanding Psychopath, The Modern ‘Monster’

: Conceptual Problems, Theoretical Risks, and Sociological Implication

Dong-Joon Shi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ology, Kookmin University

Despite the possibility of considerable conceptual problems, psychopath and psychopathy became most popular criminological terms these days. With well defined concept of psychopathy, Hare's PCL-R is regarded as the most influential measurement device of psychopathy available so far. But still psychopathy is often confused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hich has caused serious problem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PCL-R has been believed to have a strong predictive power in risk assessments and evaluations of recidivism. Given the detrimental labeling effect and the belief of incorrigibility of psychopaths,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many criminals would be undeservedly diagnosed as psychopaths and punished too harshly.

Moreover, an inevitable temptation to apply PCL to children and adolescents would produce even more tragic consequences. Theoretical problems with psychopath are even more serious. First, the problem of personality theories in explaining criminal behaviors are well known. Second, given the several possibilities of sociological explanation on psychopathy, theoretical value of psychopath concept is dubious. Third, having deviant behaviors as important components of psychopathy, explaining the cause of crime with psychopathy might result in a tautology. Fourth, because it is very hard to conduct large scale research with representative sample from a general population, testing the generalizability and validity of psychopathy arguments is practically impossible. In fact, we are living in a society where many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s are culturally encouraged at least implicitly. In that sense, psychopaths may not be that 'abnormal.' They may be the persons who well socialized with our 'abnormal' society. Nonetheless, mass media are selling the image of 'monstrous' psychopaths to the public. This practice will prevent the concept of psychopath from fully contributing to criminological theor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Key Words

psychopath, psychopathy, sociology, criminology, criminal justice